
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	
배포일자		2021년 3월 7일(일) 총 3매			
담당 부서	농축산유통과	담당자	• 농산물유통팀장 장세환 ☎440-4371 • 담당자 성우준 ☎440-4397		
사 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본격 추진

- 유치원, 초·중·고, 특수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 지원 -
- 949개교 약 36만 명 대상, 1인당 급식단가 전년대비 약 4% 인상 -
-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전체 학교로 확대, 지원품목도 친환경 인증 전체 품목으로 확대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금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인천시 관내 유치원, 초·중·고교, 특수학교 등 949개교 약 36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예산은 2,131억 원으로 시가 746억 원, 교육청이 895억 원, 군·구가 490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.
- 코로나19로 수차례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작년과는 달리 지난 3월 2일 유치원, 초·중·고교가 정상 개학했다.

- 유치원생과 초등 1·2학년, 고3 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학교밀집도 1/3에서 2/3에 맞춰 자율적으로 등교하는 등 학년별 차이가 있으나 개학과 함께 학교급식도 학사 일정에 따라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급식 지원 대상, 무상급식 분담비율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여 금년부터는 시, 교육청, 군·구 간 상이했던 학교 급별 분담비율을 시 35%, 교육청 42%, 군·구 23%로 조정하는 것에 합의하고,
-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그동안 신청 학교에 한하여 지원했던 친환경 우수농산물 예산을 인천시 전체 학교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한편, 지원품목*도 친환경 인증 전체 품목으로 확대함에 따라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인천시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됐다.
- * 기존 3개 품목(쌀, 계란, 한우) 지원
- 실제 금년 3월 개학을 대비한 각 학교의 급식 식재료 입찰현황을 확인한 결과 친환경 쌀의 구입량이 전년 대비 약 20%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금년도 사업 개선과 식품비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.
- 다만, 금년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수업 단축으로 급식예산 상당부분의 잔여 예산이 발생될 경우 잔여예산을 활용한 농산물

꾸러미 또는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 경우에는 학부모와 급식업체, 농산물 생산 농가 등이 상생하는 효율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.

- 이동기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“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” 며, “현재 추진 중인 먹거리 종합계획 및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용역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 인천시 급식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” 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사진



2021.2.5.(금) 인천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
관련 용역 보고회